

미답지의 산책자

밤새 눈이 내려 아무도 밟지 않은 새하얀 들판에 발자국을 찍듯이, 얇고 섬세한 선들이 하얀 종이 위를 날렵하게 가로지르면, 검은 형상들이 금세 화면을 꽉 채운다. 펜촉을 통해 종이의 담백한 표면 위에 모습을 드러내는 이것은 사람의 형상이었다가 도깨비의 형상으로, 새였다가 바다로, 숲이었다가 다시 유령으로, 책이었다가 괴물로, 원숭이였다가 화가의 자화상으로, 알 수 없는 상징들의 무한한 연쇄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길 반복한다. 전시장 한 층을 가득 매운 수많은 드로잉은 책이라는 느슨한 연결고리를 통해서도 따로 또 같이 저마다의 의미를 전한다.

‘산책자 노트’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우정수의 세 번째 개인전은 지금까지 그가 관심 갖고 지켜본 세상의 이면, 그 안에서 목격한 인간의 본성과 한계, 그리고 한 개인이자 화가로서의 역할에 대한 심리적 고민의 흔적들을 170여장의 드로잉과 이것을 다시 여덟 개의 작은 주제로 엮은 책으로 살펴보는 자리다. 우정수는 본격적인 페인팅을 위해 일반적으로 행하는 스케치의 과정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종이 위에 직접 붓으로 형상을 그려나간다. 얼핏 보면 그것이 쉬워 보일지 모르나, 종지와 잉크가 그 특성상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민감한 재료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이번 전시에 소개된 펜 드로잉이 갖는 의미는 더욱 분명해진다. 그는 드로잉을 통해 여러 가지 도상을 반복적으로 등장시키며, 그것을 다시 여러 상황 속에서 대입하여 다양한 이야기의 구조를 만들면서 자신의 독특한 화법을 형성해왔다. 수없이 많이 생각하고, 그것을 다시 드로잉으로 수차례 표현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인지, 그의 그림에서는 망설임 없이 그어낸 붓질이 자체가 형상에 힘을 실어준다.

보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기법의 숙련도는 대상에 대한 작가의 시선과 태도에서 기인한다. ‘산책자(Flâneur)’라는 단어의 의미처럼, 그는 오늘날의 사회라는 집단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한 개인으로서의 독립적인 시선과 태도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전시에서 소개된 드로잉을 엮은 한 권의 책을 완성하는 동안 그는 관찰자의 시선으로 지난 10년간 변화해 온 사회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면서 거기서 벌어지는 사회의 크고 작은 사건들, 견고한 사회의 시스템 아래 순응하거나 반대하는 움직임, 인간의 믿음과 불신이 작동하는 순간들을 희화화된 인물과 동물의 모습, 그리고 괴기한 풍경에 담았다. 작가는 검은 잉크를 이용하여 이것을 빠른 필치로 그려나가면서도 섬세한 묘사를 놓치지 않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중심에는 그가 책을 통해 경험하며 쌓아 올린 오랜 사고의 훈련이 자리하고 있다. 그는 신화와 민담에 관한 이야기, 영웅과 위인들의 전기, 사상가들의 철학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책을 부지런히 읽어가면서 현실 세계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작동하는 방식과 그 안에서 반응하는 인간의 삶과 본성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진실을 향해 생산되고 소비되는 수많은 양의 지식과 정보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현실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믿음'과, 한편으로는 그것이 인간의 과욕과 사회의 다양한 변수들이 야기하는 시스템의 예측불가능성으로 인해 눈앞에 닥친 현실을 쉽게 변화시키기는 어렵다는 '의심'이 공존하게 된다. 그 안에서 작가는 한 사회에 속한 개인이자 화가로서 과연 어떠한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를 자연스럽게 고민하였고, 그 결과는 각각 2015년 첫 개인전인 '불한당의 그림들'과 2016년 두 번째 개인전인 '책의 무덤'을 통해 자리한다.

작가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부조리한 일들이 정당화되어 한 사회의 질서를 그럴듯하게 구축해가는 상황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에 대항하는 인간의 모습을 이미지를 끝없이 생산하는 화가의 모습에 자신을 투영하거나('불한당의 그림들'), 지식과 문명을 향한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이러한 세상을 구원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회의적인 시각('책의 무덤')을 내비추기도 했다. 시간의 흐름을 두고 보면, 그는 불가항력적인 사회 시스템으로 무장한 현실을 목도하면서 느낀 분노의 감정을 고백하듯 날 선 발언으로 솔직하게 그려내는 것에서 출발하여, 유한한 존재로서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과잉된 욕망과 감정으로 점철된 인간의 모습을 길

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사회나 난파된 문명 속에 투영하여 냉소하기에 이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화가로서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을 항상 그림의 주요 화두로 염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전시에 소개된 책에서 직접적으로 '엔터리 화가'라고 이름 붙여진 장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장에서도 간혹 모습을 드러낸 화가의 초상에는 그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 사회 안에서 화가의 존재에 대한 여러 생각들이 늘 은유적으로 담겨있다. 그림 속에서 화가는 '그린다'는 행위를 통해 그 역할을 강요받기도 하지만, '그리는' 행위를 통해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도 한다. '산책자'가 사회의 무리 혹은 집단 속에 거하지만, 동시에 그로부터 객관적인 거리를 두고 독자적인 시선을 유지할 수 있는 양면적 존재라고 할 때, 우정수의 그림에서는 그러한 산책자의 양가적 시선이 세상을 향해서도, 화가인 자신을 향해서도 유효한 듯하다.

이렇게 화가로서의 자기비판적이고 자기성찰적인 태도는 그림의 소재로 직접 등장하는 것을 넘어, 기존의 작업에서 고수해 온 화면구성 방식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우로보로스 #1>(2017)에서 자신의 꼬리를 잡아먹으면서 태어나는 고대 신화 속 존재인 우로보로스(uroboros)를 원형의 온전한 형태로 제시하던 것에서 나아가, 작가는 원형의 순환구조에서 보이는 완전성과 전체성을 해체하고 부정하면서 그 사이로 전혀 다른 맥락의 상황들을 과감하게 끌어들이기 시작한다. 전시의 또 다른 층을 구성하는 <우로보로스 #2>(2017)는 마치 잃어버린 퍼즐 조각처럼 완벽한 원형의 구조에서 벗어난 채 몸통이 잘려나가 있으며, 그 주변으로는 예측불가능한 자연의 에너지와 초월적 세계를 나타내는 종교적 도상들, 자연을 거스르기 위한 인간의 욕망, 이 모든 것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상징들이 뒤섞여 있다. 금방이라고 잡아먹을 듯 덤벼드는 우로보로스의 맹렬한 기세 아래로 성모마리아의 온화한 미소가 번지며, 종잡을 수 없는 자연의 맹위 안에서도 꽃은 아름답게 피어난다. 이것은 '불한당의 그림들'에서 화가의 손끝에서 탄생한 그림이 화가를 위한 가면으로 흘러가거나, '책의 무덤'의 대표작 중 하나였던 <서사의 의무>(2016)가 공간 전체를 회전하듯 부유하는 문명의 상

징들을 하나로 아우르며 유지했던 거대한 순환구조를 대조적으로 상기시키는 지점이다.

아울러 종이에서 나무 패널로 그림의 재료를 달리하면서 가능하게 된 표현법도 이러한 순환을 역설하는 요소가 된다. 종이 위에 이미지를 그리고 하나의 층위를 수평적으로 확장시켰던 방식은, 나무 패널과 먹의 농담을 이용한 최근의 작업에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그림 위에 먼저 그려진 이미지를 다시 부정하듯 지우거나 옅기고, 이미지 층을 얇게 쌓아 올려 이미지 간의 전후 관계를 드러내는 방식은 이미지 간의 관계를 더욱 복잡한 다층 구조를 형성한다. 여러 개의 나무 패널로 분절된 화면 구성도 이미지 간의 연결성에 집중하기보다는 개개의 화면이 지닌 의미들이 가로로, 세로로 우연히 만나고 충돌하는 상황을 연출하여 적극적인 감상과 해석의 개입을 가능하게 한다. <서사의 의무>와 같은 기존의 작업이 완결된 하나의 순환구조와 상징적 도상들이 만들어 낸 단단한 화면구성을 통해 대상에 대한 작가의 시각을 명확하게 제시했다면, <우로보로스 #2>는 기법과 화면 구성의 가변적 특성으로 인해 대상에 대한 관객의 해석과 경험을 작품 감상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로 끌어들이는다.

이러한 특징은 전시에서 소개된 책에서 여덟 개의 다른 구성들이 서로 간에 맺고 있는 느슨한 연결 관계와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 '무거운 나무', '바보들의 왕관', '이상한 이야기', '책의 무덤', '오리엔탈이 되는 법', '유령의 얼굴', 'एं터리 화가', '산책'이라고 이름 붙여진 각각의 장은 결국 그가 혼란스러운 사회 현실 속에서 한 개인이자 화가, 산책자로서의 역할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한 실존적 고민의 흔적들을 은유적으로 담아낸 일종의 이미지 고백록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장을 구성하는 드로잉들은 오래전부터 대상에 대한 생각과 표현의 원형으로 자리하다가, 전시와 만날 때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끌어가는 구심점으로도 그 역할을 해왔다.

여전히 작가는 폭력과 광기의 야만성과 구원과 희생의 신성함이 공존하는 사회를 살아가는 산책자이길 자처하며 그림 그리는 손을 멈추지 않는다. '책의 무덤'을 통해 현실 세계를 향한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감정의 문제를 얘기했음에도 그가 보낸 시간과 고민의 흔적은 다시 그림으로 가득한 책의 형태를 갖추고 관객에게 말을 건넬 준비를 마쳤다.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을 통해 전해지듯이 인간은 유구한 시간의 흐름 속에 하나의 작은 점에 지나지 않을 순간의 삶을 사는 존재일지 모른다. 하지만 길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산책자에게 세상은 아직 알 수 없는 일들이 가득하고, 스스로의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수많은 선택들이 기다리고 있는 미답의 영역임에는 틀림없다.

글. 황정인(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다방 큐레이터)